

떠오르는

STARTUP

(주)소트뉴인터내셔널

지방 열세 딛고 패션 창업...“지역성·실험정신이 무기”

브랜드 ‘이고 프리덤 랩’ 론칭
자아 찾는 자유·해방주의 투영
스튜디오·업사이클링 라인 운영

무신사 입점·성수동 팝업 성과
파리 박람회서 유럽 수출 계약
“브랜드 팬덤 만들어 해외진출”



지난해 8월 무신사 성수 테라스 단독 팝업스토어 모습.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공모전’ 열려 15년 이상 유망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본선에서 법인 설립 1년도 안 된 광주 스타트업이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것도 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패션 창업기업. 게다가 수상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CEO였다. 광주디자인진흥원 내 위치한 (주)소트뉴인터내셔널(대표 장서린)이 그 주인공이다.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의류에 철학을 담는 기업을 표방하는 (주)소트뉴인터내셔널은 ‘자유와 해방’을 콘셉트로 한 자체 패션 브랜드 ‘AEGO FREEDOM LAB(이고 프리덤 랩)’을 통해 단기간 국내·외에서 두각을 보이는 실험 패션·문화콘텐츠 기업이다. 정형화된 수도권 패션 인프라에서 탈피, 지방이라는 ‘약점’을 창조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바꿔내며 국내는 물론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장서린 대표는 “기회의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행력의 격차는 줄일 수 있다”며 “저희의 무기는 실험적인 접근과 지방이라는 지역성을 브랜드 스토리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브랜드 철학은 ‘이고 프리덤 랩’의 네



장서린 대표

이름에서 뚜렷히 드러난다. ‘이고’는 매우 철학적이면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한자 ‘이고(離苦)’에서 비롯된 ‘고통과 번뇌에서의 해방’이다. 둘째는 한국어 접속조사로 ‘~이고’, ‘~이며’라는 의미인데, 서로 다른 것을 잇는다는 뜻이다. 셋째는 ‘A ego(하나의 자아)’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유니크한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 같은 철학이 투영된 제품의 대표 라인은 두 가지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튜디오 라인’, 그리고 재고 의류를 해체해 리디자인하는 ‘업사이클링 라인’이다. ‘스튜디오 라인’은 이고의 시그니처 디자인들로 이뤄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이다. 브랜드의 대중화에 포커싱 돼 있으며 생산량을 원활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생산체계로 구축돼 있다.

‘업사이클링 라인’은 폐기처분 될 재고의류를 활용, 이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재고의류 수량에 따라 오직 한정판매로만 진행된다. 시즌마다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버를 통해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여 인기가 높다.

2023년 2월 이고 프리덤 랩은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무신사’ 입점에 성공했다. 입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별 페이지 부 대매 구매 전환율이 평균 6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후 무신사 성수 테라스에서 2주간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도 운영했다.

무신사 본사는 이 브랜드를 온·오프라인 동시 인큐베이팅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5



이고 프리덤 랩 제품

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패션 수출 박람회’에 초대해 유럽 바이어와 7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거뒀다.

이는 패션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스타트업에게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장 대표는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후 곧바로 창업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수입이 비대면이었던 4학년 시절, 전국단위 창업 공모전에 참여하며 모두 8개의 상을 휩쓸었다. 대표적인 수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셜디자인랩 대상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최우수상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법인을 설립했고, 이듬해 브랜드를 공식 론칭했다.

처음부터 대규모 생산이나 단일 품목 전략이 아닌, ‘패션 콘텐츠화’를 선택했다. 브랜드의 해체주의 감성과 ‘지방 출신 여성 청년 CEO’라는 스토리는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에게도 브랜드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창업이란 새로운 판을 짜는 일이고, 광주는 그 판을 깔기 좋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과 창업을 고민중이라면 과감하게 창업을 권장한다”며 “다만 나이를 떠나 창업 전 많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를 기업과 연결하는 구조도 구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남대 등 지역 대학에 출강해 창업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패션·디자인 전공자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주)소트뉴인터내셔널은 현재 광주디자인진흥원 내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지사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디자인과 제품기획을 총괄하고, 수도권은 네트워크와 마케팅 중심으로 배치한 구조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한 200억 규모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조합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주)소트뉴인터내셔널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및 광주비엔날레와의 MOU도 체결하며,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연계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도움

지역상생공인

광남일보

광주광역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웃음치료 (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맞춤형 전문케어 (치매, 파킨슨: 간호사2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21:1)

축탁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축 고급 실내

음악(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릭 요양원

☎ 062)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전남신용보증재단은 31일 본점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남신보 “금융·비금융 아우르는 플랫폼 도약”

창립 24주년 유공자 표창·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31일 본점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재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의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단 이사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서약서와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유하고, 전 임직원이 공정한 투명한 조직문화 실천과 인권존중 경영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근 이사장은 “지나해는 재단의 기틀을 다졌고, 올해는 실행력과 성과 중심의 업무체계를 정착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본격 도약하자”고 밝혔다.

전남신보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만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8조60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해 왔다. 금융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국가ESG 경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대외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폭우·폭염 번덕스런 날씨에 ‘우양산’ 인기

MZ 남성 수요도 한몫...광주신세계, 전년비 24.9% ↑

폭우와 낮 최고기온이 연일 30도를 넘 어가는 뜨거운 날씨에 이어지면서 다양한 기능의 우양산이 남녀노소 여름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우양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남성도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우양산은 UV코팅 및 방수 코팅 원단으로 차광률과 자외선 차단율까지 높아 햇빛과 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우양산 브랜드 ‘W.P.C’ 매장에서는 남성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을 갖춘 남자양산을 선보이고 있다. 네모각진 모양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5단 우양산도 만나볼 수 있다. 이 제품들은 초경량으로 편의성과 자외선 차단율 99.9%는 물론 열 차단으로 쿨링 효과까지 느낄 수 있다. 본관 3층 ‘estaa’ 매장에서는 원단 안쪽에 화려한 프린트가 특징인 우양산을 선보인다. 꽃다발 부케 이미지의 내부 디자인과 초경량으로 작은 백에도 간편히 휴대하기 좋다. Estaa는 핀란드어로 ‘예방하다’, ‘파하다’는 뜻으로 기후 변화로부터 몸을 지키며 날씨를 즐기는 콘셉트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W.P.C 매장에서 직원들이 변화하는 날씨 속에 활용도가 높은 우양산을 선보이고 있다.

의 양산과 우산을 전문 생산하는 브랜드로 인기가 높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